

현 불 뉴스

# “생명존엄성 파괴 안된다”

## 조계종 결산총회 25일 개최

조계종중앙총회(의장 설정)는 지난 2월 18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125회 임시총회(결산총회)를 25일 개최해 5일간의 회기로 개회기로 했다. 96년도 중앙총무기안 결산안을 심의할 이번 총회에서는 “중앙총회 운영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2회 총회의원 연수를 3월 6~7일 강원도양양 보리수마을에서 ‘사찰환경’(장사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종교와 정치’(윤세원 인천전통대 교수)를 주제로 실시기로 했다. 연수에서는 ‘중앙총회 운영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강원불교연합회 창립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홍사(주지 도후)와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2월 26일 강원도양양 보리수마을에서 두 교구 본말사 주지사님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불교연합회 창립총회를 봉행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도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기원법회와 신년교례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강원불교방송 설립 등 강원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교사 논문심사 폐지

논문을 통한 포교사 선발과정이 폐지되고 고시로 일원화 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2월 24일 고시와 논문심사로 나눠 선발했던 포교사 선발과정을 금년부터 고시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96, 97년 두차례에 걸쳐 논문심사를 통해 포교사를 선발했으나 논문 내용이 대부분 복제된 것이고 질적 수준도 낮아 포교사 선발요건에 부적합하다고 결정, 금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조계종 포교사 399명 품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2월 23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신규포교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신규포교사 연수교육에서는 포교사 고시와 논문시험 합격자 399명에 대한 신규포교사 품수식이 실시됐다.

또 연수회에서는 포교사의 역할과 의무(원해 포교부장, 포교활동의 세부 지침 설명(김관태 포교과장), 포교와 상담(신희권 자비전화 사무국장)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 진관스님석방 후원의 밤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이 4일 오후 6시 동국대학교 동국문화관그림에서 개최됐다.

대불청 노래패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설정(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자선(전불련 의장)스님 고은시인(본지 논설위원) 김승훈시인 박형규목사의 석방촉구사가 낭독됐다. 또 진관스님 옥중서한과 진관스님에게 드리는 글이 발표되고, 인목스님의 축원공연이 펼쳐졌다.

## ‘복제양 성공’ 불교계 시각

지난 2월 25일 스코틀랜드에 든버러 소재 로스리연구소가 밝힌 유전공학에 의한 양(羊) 복제 성공 사실은 ‘복제인간’의 시대가 한층 가까워졌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온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생명체의 질서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복제생명’, 재인가가 아니면 발원인가.

생명복제는 유전공학의 기술에 의해 이뤄진 산물이다. 많은 불교학자들은 식량증산, 대체에너지개발 등 유전공학의 지향하는 바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불교의 세계관인 이미션(利美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일정한도 내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정도를 넘어설 경우 오히려 대치점에 설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를 위한 지나친 살생이

은 한낱 고전(古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윤리적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진씨(신경정신과원장)는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귀함을 실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녀나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복제했다고 해서 똑같은 수를 얻는다. 업까지 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 자체가 창조론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에서나 문제될 뿐 인간평등(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말하는 불교는 이 같은 문제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간복제에 대해 불교의 ‘윤회’나 ‘업’사상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분분하다.

양현진교수(고려대 물리학)는 “불교적 윤회의 의미는 똑같이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전자 복제가 윤회와 상치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지장신앙, 아미타신앙 등의 내세적 신앙은 불교의 중심사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업의 개념 또한 이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광서교수(서강대 물리학) 역시 “형태가 같다고 해서 전생의 업이 같을 수는 없으며, 복제인간은 업을 안은 생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교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반면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는 “인간복제는 과학기술로 인해 공업(共業·여러 사람이 업을 짓고 업을 짓는 것)을 짓는 것이며, 업의 행위에 의한 생명체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인간복제시대 예고 “인류혼란 우려”

“연기법 역행... 생명체 진화 저해”

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며 “한 생명이 부모자식 3연의 업으로 이뤄진다는 교리상 혼란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역시 “인간복제로 인해 자연의 원리가 깨진다면 불교의 중도사상이나 연기법,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는 각종 계명

# 동국대 일산캠퍼스 올해 착공

## 불교종합병원도... 발전기금 322억 모금

동국대 학교발전기금 3백22억원을 조성하고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일산 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가시화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월 28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을 초청하여 학교발전기금 3백억원 조성에 따른 ‘감사와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1천베드 규모의 불교종합병원과 일산 3캠퍼스 올해 착공 계획을 밝히는 등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탈린트 이덕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 월주(조계종총무원장) 윤덕(천대총무원장) 고산(쌍계사회주) 동광(도선사주지) 정우(구룡사주지) 대행(한마음선원장) 혜운(소림사주지)스님과 강성영(고려화학) 이순목(우방회장) 박해순(우리재단이사장) 등과 태음(불교TV) 도연(금수선원장)스님 등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지난해 ‘비전! 동국 100년’을 선포해 불교계와 기업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1월말까지 3백22억원의 동국발전기금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발전기금 1백98억원(61.39%) 장학기금 15억원(4.79%) 연구기금 1백9억원(33.82%)이 기록됐다. 동국대는 97년도 주요사업으로 △대학별 학과별 기금조성 △동문교양문화 활성화 △동국인 5만명 정보전산화 △동국UP 발표회 △만민발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불자 10년동안 220만 증가

### 통계청 95년 인구조사 발표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455만4천여명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천259만1천8천여명(50.7%)으로 이중 불교인구는 1천32만1천여명(23.2%)으로 밝혀졌다. 개신교는 876만여명(19.7%) 가톨릭 295만1천여명(6.6%)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지난 2월말 발표한 1995년 11월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최종전수(全數)집계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결과는 정부기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인구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8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와 비교해 종교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본지 9호 1면 참조)

불교는 1985년 조사된 806만여명(전체의 19.9%)보다 226만1천여명 늘어나 10년간 3.3% 증가했다. 개신교는 227만1천여명 늘어나 3.6%의 증가를 보였고 가톨릭은 1985년에 186만5천여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108만5천여명이 늘어난 증증세를 나타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이 각각 72%, 67.5%(불교는 56.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불교 26.6%, 개신교 15.4% 가톨릭 17.6%로 나타났다. <속>

## 약파는 성지순례 사찰·신행단체 ‘피해’

술포 조선후약이 불자회를 사칭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행사 지원금 발미로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해 불미로 빚고 있다.

술포 조선후약은 지난 2월 23일~24일 서울 금강선원 불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남해 보리암일대 성지순례를 실시하면서 홍보비디오 상영, 건강식품 판매, 회 사소개 등 약품구매를 부추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급증했다고 동참했던 불자들은 분개했다.

#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창립

## 회장에 송재건씨

조계종 직할교구(조계사)신도회는 지난 23일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혜창스님을 비롯 직할교구 소속 말사 신도회장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송재건씨(59·종원미디어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회칙을 통과시켰다. 송 회장은 “불교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직할교구신도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감사에 이



현수(화계사 신도회장) 김경애씨(수국사 신도회장)를, 부회장에 손현수(영화사 신도회장) 이연세(석왕사 신도회장) 한재구(내원정사 신도회장) 백영기(도선사 신도) 홍옥진(조계사 신도회장) 명을식(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박종민(봉국사 신도회장) 임정욱씨(승가사 신도회장)를 부회장에 임명했다.

# 김해·울산에 유치원 개원

## 통도사 부산포교원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 부산 유치원이 김해와 울산 두 곳에서 동시에 개원된다.

6일 김해 연꽃어린이집에 이어 7일 울산 보리수어린이집이 각각 개원식과 함께 130명의 입학식을 갖는다. 두 어린이집은 대지 3백평에 건립 1백20평의 규모의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 있다.

이로써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산 유치원은 부산에 2개소와 김해 울

산에 각 1개소씩 모두 4개소이다.

## 한민족불교회 출범

### 승·재가 1천명 동참

한민족불교종교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정범·상임사주지)는 20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민족불교종교회 창립준비위는 지난해 6월 발기대회를 가졌으며, 현재 승·재가를 망라해 1천여명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에는 조계종총무원의 한 현직부장님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학인정원의견 못좁혀 승가대학령 공청회

조계종교육원(원장 원산)은 승가대학(강원)령 시행을 앞두고 일부 교구본사와 승가대학에서 이견을 제출함에 따라 승가대학령 시행에 따른 공청회를 지난 2월 25일 서울 법원사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5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되는 학인정원과 관련된 각자의 입장만 제시했을 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인정원을 교육원은 40명, 교구본사와 강주 학인대표는 각각 20명을 제시해 현격한 의견차이를 나타냈다. 최대 인원은 8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교수수는 교육원에서 제시한 5명 이상에 대해 대체로 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총무원과 협의해 거쳐 개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지난 2월24일 전법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 “전법은 불교도 모두의 사명”

## 조계종, ‘전법의 해’ 선포...10대 사업 발표

조계종은 지난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전법의 해’ 선포식을 봉행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월주스님은 종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전법은 불교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진리에 대한 믿음의 자선에 찬 표현”이라며 “전법행에 모든 불자들이 대원력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전법의 해 10대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법도량 지정 및 지원금 제공 △도시지역 중심 불교교양대학 건립 추진 △문화화재사찰 안내 프로그램 실시 △전법 5개년계획 수립 △

## 마음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알도 없고 뭐도 없이 놓고 나가며 비로소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져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무심코 놓고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온 인연 딱지라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어디에도 걸림없는 도리축 양이 없는 도리축 양이 되는 것이다. (한가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범형제회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불가신 분들에게 믿어주고 도와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경장 불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재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중생을 멸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사실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써 실제로 체험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용하여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정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경장 불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라니를 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여 사업에서 주교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 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 체험 하였고 스님들이 전해주셨으며, 본회에서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적자를 만들어 인연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 스님용 불탑다라니 사용방법책자, 신도용 영험집 책자,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친족연속 일체지정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불명짓는법 등이 수록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길게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주시고,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산산아들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써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림으로서 다스리나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특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을 불명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실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잠만깨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큰힘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부설 : 바라밀건장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한국역학대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바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키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 교육기간 : 6개월
  -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당학
------	-----	-----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입학금 및 수강료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영명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희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대대학 유학할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한국역학대학** 대표전화 (02)423-6446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5-3 해광 B/D4층